

인구 고령화와 채권시장

영국 경제일간지 Financial Times(7.26)에 따르면 선진국의 빠른 고령화가 채권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은퇴기에 도달한 부유층이 투자자금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서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과거 수십 년 간의 연구에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노년인구가 많아질수록 채권 수요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더글라스 렌윅(Douglas Renwick)은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고령화의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82년 선진국 인구의 12%이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6%로 증가하였으며 2042년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M&G Investment의 조나단 윌콕스(Jonathan Willcocks)는 “우리는 현재 변곡점에 서 있으며 선진국의 투자 가능한 자산 중 3분의 2를 50세 이상 인구가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자산 이동이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을 위한 네트워크(SFM)’에 따르면 뮤추얼펀드와 부유한 개인들이 전세계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채권시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도 앞으로 채권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업체 머서(Mercer)에 따르면 유럽 연기금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고령화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일부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기 물가연동국채가 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회사채가 더 낫다고 주장하며 부유한 은퇴자들이 과거 국채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였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현재 2.6%대로 1994년 8.0%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채권은 아니지만 주식 중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배당주도 고령화 시대의 투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맞는 헬스케어산업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권하는데 최근 S&P 500 헬스케어 지수가 작년 초 대비 약 50% 상승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세상 둘러보기

부산이 만든 세계 1위 제품 -선박용 소화장치-

선박소화장치란 선박의 무인기관실 등에 화재발생이 감지되는 경우 소화약제가 신속히 분사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박용 소화장치에는 대표적으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수동펌프, 포소화기(화학포, 기계포), 고정식소화장치용 관류,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장치용 안전밸브 등이 있다.

한국조선기자재협동조합에 따르면 선박용 소화장치 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2,500억원 인데 이 중 부산소재기업(엔케이)의 제품이 약 40%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머

[어느 소개팅에서 생긴 일]

남자: "우리 밥 다 먹었으니 어디 갈까요?"

여자: "어머, 남자가 소개팅 나오면서 어디 갈건지 뭘 먹을지 뭘 할건지 다 계획하고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남자: "죄송한데, 내 계획엔 당신 얼굴이 없었어요."

조언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언지 아니?"

"흠.. 글썽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

▶ 채권금리 소폭 상승세(채권가격 하락)

→ 상반기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금리 소폭 상승

▶ 다우지수 하락세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부각되었고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6월 미결 주택매매지수가 전달 대비 0.4% 하락한 것 등의 영향

▶ 엔화가치 최근 한달 사이 최고치 기록

→ 미국 양적완화 조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매수세가 커져 7월 30일 엔화환율이 1개월 만에 최저

◎ 금리

	2012년 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26	7/29	7/30	7/31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9	2.69	2.66	2.66	2.66	2.66
통화안전증권(1년)	2.78	2.66	2.69	2.69	2.67	2.68	2.69
국고채(3년)	2.82	2.78	2.88	2.94	2.90	2.91	2.92
회사채(3년, AA-)	3.29	3.14	3.31	3.39	3.34	3.35	3.36
회사채(3년, BBB-)	8.80	8.75	8.89	9.03	8.89	8.99	9.01

◎ 주가

	2012년 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26	7/29	7/30	7/31
KOSPI	1,997.1	2,001.1	1,863.3	1,910.8	1,899.9	1,917.1	1,914.0
美다우	13,104.1	15,115.6	14,909.6	15,558.8	15,552.0	15,520.6	15,499.5
니케이 225	10,395.2	13,774.5	13,677.3	14,130.0	13,661.1	13,869.8	13,668.3
상하이종합	2,269.1	2,300.6	1,979.2	2,010.9	1,976.3	1,990.1	1,993.8

◎ 환율

	2012년 말	2013. 5월말	2013. 6월말	7/26	7/29	7/30	7/31
원/달러	1,071.1	1,128.3	1,149.7	1,117.3	1,111.7	1,109.4	1,113.6
원/100엔	1,247.5	1,116.6	1,167.2	1,125.7	1,134.8	1,132.9	1,135.4
원/유로	1,416.3	1,471.4	1,498.2	1,483.8	1,477.3	1,471.1	1,476.7
원/위안	171.9	184.0	187.0	182.1	181.3	180.9	181.6
엔/달러	85.86	101.05	98.51	99.25	97.97	97.93	98.08